화순 작두콩-손 세정제, 진도 울금-면역력 강화, 완도 비파-혈압 조절

‘항바이러스’ 효과에 주목받는 전남 식품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다. 지역민들의 이동이 평소의 절반 이상 줄었고, 이동이 없으니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지역경제는 초비상이다. 지자체마다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그런 가운데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지역 식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화순 작두콩, 진도 울금, 완도 비파가 대표적이다.

◇항바이러스 효능 ‘화순 작두콩’

최근 전남대 연구소기업이 작두콩을 원료로 손 세정제를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99.9% 이상 항바이러스 효력을 인증하면서다. 작두콩에 들어 있는 ‘콘에이(con A)’ 성분이 바이러스와 결합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거나 씻어낸다는 설명이다.

화순 작두콩-바이러스 중화 ‘콘에이’ 성분 함유
진도 울금-대구시민에 환·분말·과립 등 보내 응원
완도 비파-베타카로틴 등 풍부 성인병 예방 특효

작두콩에는 다른 콩에 없는 비타민 A와 C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B는 다른 콩의 4~5배 들어있다. 따뜻한 성질을 가져 속을 편하게 만들고 위염·기관지염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비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두콩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주산지인 화순군이 주목받고 있다.

작두콩은 지난 2010년 화순지역에서 틈새 소득작목으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다. 2012년 8ha에 그쳤던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47농가가 24.5ha를 재배, 전국에서 작두콩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됐다.

화순군은 그동안 작두콩차의 가공식품 개발과 재배농가 지원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티백 형태의 작두콩 차를 출시해 이전까지 생물이나 환·가루 형태로 이용되던 작두콩의 고급화와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들었다.

화순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화순의 작두콩은 특유의 깊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많다”며 “이번에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입증돼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역력 강화 ‘진도 울금’…대구 응원

‘봄동’으로 대구시민들에게 희망을 배달한 진도군이 이번엔 면역력 강화에 좋은 특산품 ‘울금’을 보냈다.

진도군은 지난 6일 5000만원 상당의 울금 가공제품을 대구시에 전달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대구시민들을 응원했다. 진도군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환·분말·과립·농축액 등 20여종의 울금 가공제품을 전달했다.

카레의 주성분인 울금(강황)은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높다. 백승헌 한의학 박사는 “카레 속에 울금이라는 한약재가 들어있다”며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어서 면역을 하는게 아니라 면역의 핵심인 폐와 간,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면 바이러스 자체를 몰아낼 수 있다. 울금의 주성분인 커큐민을 분석해 보면 열을 내리면서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과 혈압을 내린다”고 주장했다.

진도 울금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산화·항염 작용에 뛰어나 암 억제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개선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간 기능 개선, 치매와 아토피 예방, 소화 기관과 면역성 강화 등에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전국 울금 생산량의 70%를 재배하고 있는 울금 주산지다. 현재 183농가가 21ha에서 연간 400여t을 생산, 5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화순 작두콩차

완도 비파

진도 울금

◇황금과일 완도 비파…베타카로틴·칼륨 등 풍부

완도에서는 황금색 웰빙과일 비파 생산이 한창이다. 평년보다 3개월 빨리 수확하고 있다.

비결은 과학재배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겨울철 최저온도를 0도 이상, 주간 온도는 30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했다. 여기에 최고 품질의 비파 생산을 위해 꽃봉오리 솎기를 통해 꽃봉오리당 착과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자 봉지씌우기를 해줬다.

유기농법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지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됐다.

비파는 전국적으로 약 101ha가 재배되는데 전남이 91ha로 90%를 차지한다. 특히 완도 재배면적은 72ha로 비파의 주산지다. 올해는 하우스와 노지에서 약 100여t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비파 열매는 황금색을 띠며 베타카로틴과 칼륨,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 혈압 조절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잎은 코로소린산과 우르솔릭산, 에피카네킨, 아미그달린 등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조절, 충치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고품질 황금색 웰빙과일 비파를 유기농·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완도 비파의 맛과 효능으로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꼬꼬마양배추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확대 육성한다. 〈군산시 제공〉

군산시, ‘꼬꼬마양배추’ 수출 전략품목 육성

재배면적 확대·작형개발…대만·일 수출 물량부족 해소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라클 케이푸드(미래에 클 농식품)에 선정돼 수출 유망품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확대 육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지난해 16ha에 410여t을 생산해 대만과 일본 수출에 이어 롯데마트 등 국내 소비시장까지 판로를 확대했으나 연중 출하물량 부족으로 시장진입의 걸림돌을 겪었다.

이에 군산시는 올해 국내외 공급량 확대를 위해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리고, 연간 3차례 수확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3기작 재배 작형 개발에 나섰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시설재배 농가의 봄·가을 2기작 재배 방식을 조기재배를 통해 3기작 재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공동으로 꼬꼬마양배추 연중 재배작형 개발에 나섰다.

당초 3월 말에 재배를 시작해 5월말에 첫 수확을 했던 기존 재배방식을 개선해 올해는 30일정도 앞당겨진 지난달 25일부터 시설하우스에 꼬꼬마양배추 모종 정식에 들어갔고, 두달 뒤 4월말에 첫 출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하절기 7월에서 9월 사이 출하를 위해 6월과 7월에 정식하는 2기 작형, 동절기인 1월에서 3월까지 출하를 위해 10월과 11월에 정식하는 3기작 재배기술 보급으로 부족했던 꼬꼬마양배추 물량 확보는 물론 연중 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순창군, 논 타작물재배 목표 261ha…8억6000만원 확보

순창군이 쌀값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순창군의 올해 타작물 재배 목표 면적은 261ha이며, 예산 8억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ha당 지원단가는 조사료 작물이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농지 210만원 등이다.

지난해에는 김장 및 양념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해 무, 배추, 고추, 대파만 지원 제외 품목이었으나, 올해는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도 포함시켜 총 8개 품목을 제외한다.

신청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1000㎡ 이상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7월부터 10월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 적격 대상농지에 한해 12월중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 사매면에 ‘은퇴자 공동체마을’ 운영

시-공무원연금공단, 펜션 5개동 체험활동 입주자 모집

남원시가 사매면 노봉마을에 은퇴자 공동체마을을 운영한다.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최명희 작가의 혼불문학관이 소재한 사매면의 노봉마을에 펜션 5동을 임대해 운영키로 했다.

이곳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공무원 등 공적 연금수급자 5세대를 대상으로 단기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들은 5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주해야 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정읍 복분자·오디 등 베리류 농가 기술 지원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베리류(복분자·오디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9일 정읍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겨울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봄철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 피해와 병해충 조기 발생이 예상된다.

베리류의 휴면기간이 짧아져 싹트는 시기가 4~6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센터는 4월 하순까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육상황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화기 냉해 피해 예방과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 기술과 과원 관리법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